

교회 목표

신실한 예배
친목인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전 18: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 3:4)

내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믿고 맡겨주신 일

2004년도 일꾼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 다음 주일(21일) 4부 예배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믿어주시는지!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이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반 생각해보도 그렇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막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신비한 방식으로 직접 일꾼을 정해 주셔도 될 텐데, 우리에게 선출하라고 맡기셨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꾼을 택하라" (행 6:3a).

무관심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고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해서야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공동의회에 참여해야 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니콜라를 택하여" (행 6:5).

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장로 후보 4인, 안수집사 후보 50인, 그리고 권사 후보 60인을 회 교회에 추천하였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현실 속에서 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꾼들을 인사위원회와 당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에 추천하였다. 주께서 기뻐하신 만한 일꾼들로 임명된 신실한 정치기들을 여러 번 심사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당회의 추천을 믿고 신뢰하며, 후보들을 찬찬히 살펴본 후에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다음 주 공동의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충현교회가 복음의 길로 더 힘차게 달려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의회]

일 시: 2004년 3월 21일(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안 건: 일꾼 투표(장로, 안수집사)

장 소: 총현교회 본당
참석대상: 세례교인

*장로 · 안수집사 후보 명단은 주간충현 부록을 참조하세요

충현교회의 영적 발전소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24시간 연속기도회

교회에도 전기가 흘러야 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흘러 편리한 생활을 가능케 하듯, 교회 구석구석에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영적인 전기가 흐르며 모든 성도들을 생기 있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일이 능력 있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는 어디일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기도의 장소! 바로 그곳이 교회의 영적 발전소이다. 충현교회에는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도모임이 있다면,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24시간 연속기도회이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한 순간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연속기도회! 앞으로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외식 없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치솟고, 하늘의 종성한 은혜는 이 땅에 단비같이 내리리라. 우리도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자.

새벽을 올린 은밀한 기도

3주째로 접어들 특별새벽기도회

어느 권사님이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청년이 교회의 일꾼들과 선교 사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젊은 청년이니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도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까닭에 위임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사역을 놓고 이른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밀려온다.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자. '저 청년에게 있는 열심과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새벽을 깨우고 이 거룩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자.

이번 주 새벽기도회 주력교구

일 시	교 구	일 시	교 구
3월 15일(월)	2, 8, 14 교구	3월 18일(목)	5, 11, 17 교구
3월 16일(화)	3, 9, 15 교구	3월 19일(금)	6, 12, 18 교구
3월 17일(수)	4, 10, 16 교구		

젊은 일꾼, 젊은 충현교회

서리집사 임명 최저 연령 낮아져

지난 주 수요일에 열린 3월 정기당회에서 교회는 서리집사 임명 최저 연령을 대폭 낮추었다. 남자 서리집사는 기존 27세에서 만 25세로, 여자 서리집사의 경우는 기존 27세에서 만 23세로 각각 낮춰졌다. 단 입교 후 총일이 3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권장 임명 최저연령도 낮아졌다. 만 23세 여자 입교인 중에서 흠없이 1년 이상 경과하면 권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젊은이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깨워주시고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시는 까닭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났다. 교회가 이번엔 서리집사 임명 최저 연령을 낮춘 것은 위와 같은 젊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젊은 일꾼들이 더욱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 늦기 전에 등록하세요

교육훈련연구원 수강신청 접수 중

오늘부터 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각종 훈련과정이 시작된다. 훈련에 참여하고 싶지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성도들께서는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 물론 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등록하고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 강의가 길어야 12분 밖에 되지 않으니 한 시간이라도 놓치면 그만큼 손해인 셈이다. 이왕에 훈련을 받을 것이라면, 첫 시간부터 참석하여 성실한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등록 및 수강신청은 **제1교육관 2층에 있는 교육연구과 직접 가서 해야 한다.**

교사양성부	오늘부터 주 일 15:00~16:30	베다니홀
천안대원양성부	오늘부터 주 일 15:00~16:30	제1교육관
주강성경공부	16일부터 화요일 19:30~21:00	제1교육관
	수요일 14:00~15:30	제1교육관
전도대원훈련	17일부터 수요일 14:00~16:00	나사렛홀

오늘 CMTC 일정

1 교시(18:10~19:10)	장소
세계 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	갈릴리홀
2 교시(19:20~20:20)	장소
1. 정교, 카톨릭	나사렛홀
2. 이슬람교	갈릴리홀
3. 힌두교	본당112호
4. 불교	베다니홀

*4월에는 CMTC가 없습니다.

4, 5월 출발일은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문화원 강의시간 변경(자난 주부터)

매주 일 오후 3:20~4:00에서 3:00~4:00로 변경

(영어는 변동없음) 자세한 사항은 5번 참조

NEW BEGINNING

“(9)Then the LORD said to Joshua,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So the name of that place is called Gilgal to this day. (10)While the sons of Israel camped at Gilgal, they observed the Passover on the evening of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on the desert plains of Jericho. (11)And on the day after the Passover, on that very day, they ate some of the produce of the land, unleavened cakes and parched [grain]. (12)And the manna ceased on the day after they had eaten some of the produce of the land, so that the sons of Israel no longer had manna, but they ate some of the yield of the land of Canaan during that year---.” (Joshua 5:9-15)

The message in today's short passage is very important to the meaning of the whole Bible. It concerns a new beginning, an exciting time in the spiritual history of Israel. Moses had led God's people to the Promised Land, but God used Joshua to lead them into it. You cannot compare Moses with Joshua, but Moses could not go into the Promised Land or cross over the Jordan River. As such, God picked Moses' servant, Joshua, to lead the Israelites across the Jordan River. After 40 years of desert tent living, these wandering people were about to settle down in their own land. They had no experience in Egyptian living, for they were born in the desert and only heard about the Red Sea and Passover miracles. Their experiences related to hot days and cold nights, a strict diet of manna and water, and complete loss of their parents. With their leader dead, they now miraculously cross the dry Jordan River with a new leader.

In front of the Israelites lay the land of Jericho, and behind them the Jordan River. The Anak were giant people, and the banks of the Jordan River were overflowing again. They had no choice in making a new start. It is here that God ordered the circumcision of His people. They did not grumble, complain, or try to issue their own traditions, but decided to obey God's order by faith. The male adults cut their skins. They emptied themselves of self-reliance, and totally put their trust in God. If the enemy attacked, their weakness would bring total destruction, for they could not move until healed. They had to trust completely in God. God blessed their obedience. He said,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v. 9). The taunts leveled by the Egyptians at the Israelites for their failure to gain their Promised Land now had no ground. The shame of the past was gone, and the start of a new beginning had come.

God blessed the Israelites because they followed Him.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us. We are servants of God, and we have to decide in our hearts whether to issue our own customs and traditions, or dedicate ourselves to the Lord only. After 40 years of not celebrating the Passover, on the day God blessed them, “they observed the Passover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on the desert plains of Jericho”(v. 10). During this Passover, for the very first time they ate from their land, and “the manna ceased on the day after they had eaten some of the produce of the land, so that the sons of Israel no longer had manna”(v. 12). What a blessing! What a celebration! Now, God's people had become His children. They arrived at their new land, and celebrated a new Passover with the produce from this land. Indeed, they still had a long way to go, but God was now leading their future. It was a new beginning!

What is going on with the future of your life? You are traveling on the journey of life somewhere. I want you to start with a new beginning. It is not the wide way, the way of the world, but the narrow way, the way of the cross. It is a perfect path, which requires you and Jesus Christ to be together. If you want to stay on this path, you cannot focus on the world, but only on Christ. Jesus Christ is not your enemy. He is your Lord, Savior, and Redeemer. He is the best friend you can have. So, forget the past, cut the skin, and from now on walk with Jesus Christ. Take the food of life and move forward.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find yourself. Be humble, experience joy, and praise His name as you take each step toward heaven. God will lead you;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As Joshua was preparing for battle, he looked up and found a man standing in front of him dressed for battle with a sword drawn. Joshua questioned, “Are you for us or for our adversaries”(v. 13)? The man said, “No; rather I indeed come now as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vv. 14&14). My dear friend, new beginning person, you are standing on holy ground wherever you go. When God is in front, as you follow, your pathway is holy. The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is Jesus Christ. He is the only One who can lead you to victory.

Joshua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and bowed down to his visitor. He worshiped the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as God. He recognized his caller, and acknowledged that this was His war and that the Israelites were but a part of the Lord's hosts, which also included angels and the forces of nature (see 6:2). He said, “What has my Lord to say to His servant?” In other words, he responded to Christ's presence by accepting that whatever God wanted him to do, he would do it. You have to be willing to humble yourself and go God's way. Joshua did not raise his sword. He didn't fight against God. He dropped his pride, worshipped, and obeyed. In your new beginning, you have to drop your ideas, worship the Lord, and do His will.

This is the 4th Sunday of Lent, and it looks to me like this church doesn't have a great leader, just an ordinary servant that God has chosen to use for His purposes. Jesus is nearing the cross; His suffering is great. He is making the perfect pathway. Please, let us start the new beginning. He is dying to give us the new beginning. Make up your mind, cut your customs and traditions, and deny yourself. Enjoy and celebrate His grace. Witness His Passover, Remember you are standing on holy ground! Go now, walking in His love. 🕊

다음 주일 설교

새로운 출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볍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수 5:9-15)



김성관 목사

새로운 시작

이 짧은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 흥미진진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도 안될 만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택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간에 걸친 광야의 천막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랑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살아온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캠프에서 태어나 홍해의 기적과 유월절의 기적을 전혀 들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처한 것이라고는 뜨거운 낮과 추운 밤, 만나와 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 부모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러 가지 있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거인인 아나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요단강은 다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지도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지도 않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작 어른들은 몸의 표피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고 있는 중에 적들이 공격해와도 하면, 골짜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9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같이 힘없는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말인가? 라는 조롱하던 여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수치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순종과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이나 관습을 따를 것인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지를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에,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10절).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처음으로 먹었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12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새롭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실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

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과 세상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완전한 길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행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의 주 오 구원자이시며 구주자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천국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경배하며 순종하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다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13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14, 15절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여러분이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여호와와 군대장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과 자연의 힘도 포함하는(6:2 참고) 여호와와 군대 가운데 한 부문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즉,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말씀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임명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들지도 않았고 대들지도 않았습다.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경배했으며 순종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여러분도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충현교회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평범한 종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관습과 전통을 잘라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

장로칼럼

십자가 밑에서

섬을 얻는 교회



김 광 남 (장로, 감사위원장)

신년예배식 (그 길)이란 설교로 200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가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들으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일로 머뭇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삶과 의식 속에 파고들어 온 세상의 욕망과, 자량과 세상을 추구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 지를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진지하고 간절해 지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조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확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시잔마다 강단에서 울어나오는, 우리 자신을 찢는 비수같이 말씀에 몸부림치기를 수 삼년, 그렇게 자신만만한 자존심으로 팽팽하게 살아있던 모습이 꺾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한 양같이 된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에서 그 방식을 찾으려 하였고, 그래서 절로오는 그런 착하면서 뒤에 숨겨진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외식적이고 거짓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 밑에 섬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부족과 거짓과 외식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리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찾으며 나아가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며 주변의 모든 일들을 '세상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나그네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열정,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함께 참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또 '우리는 저 나이에 왜 저리 수 없었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요. 세월이 갈수록 마양의 문화와 배교의 물결이 관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순수하게 예수, 복음,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장성해 나가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지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류의 감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 방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바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헌금 사용의 집행은 잘 해 나가도록 도와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은 일을 처리하다가 잘 모르겠든 언제든지 저희 감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매주일의 경성감사와 1년여 주차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만큼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행하여 실수하지 않을 까하여 이런 기관을 두고 피차 교육하며 지도해 나가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용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십자가 밑에서 진정한 섬을 얻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죽고 사는 것 (롬 6:6-14)

로마서 6장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다.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을 깨닫고 체행하기를 원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8절), 이 말씀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죽음!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정해야 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다. 이 죽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허무를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설명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고 명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요 특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의무인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을 느끼며 인간답게 몸부림치기 말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죽음과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신자는 이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을 찾아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아니오'이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인 것이다. 성경은 신자에 관하여 말한다. '우리가 알나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롬 6:6a).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속한 살, 자기 만족과 지위를 위해 살던 살, 세상의 욕망과 부귀와 명예를 구하던 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6b). 그렇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 사람이 되었다. 에수를 믿은 후에 인격을 열실호 수형제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믿음으로 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는 죄를 생각해야 보다. 죄의 산은 사망이다(롬 6:23). 그러나 이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롬 6:9).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의 기쁨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지만 사망과 죄는 여전히 우리를 정복하려고 매순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남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던 720, 323,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요일 1:8, 약 3:2).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삶이어야 한다.

실심하자 -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실심하도록 하자.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중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사육을 순종하지 않게'(롬 6:12). 그렇다. 깨어질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죄는 여전히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왕 노릇 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힘이니라'(갈 5:17). 이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에 규를 기울이면 반드시 넘어지고 만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의 소욕에 순종하여, 세리질 몸에서 세상의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몸은 허영과 사치의 도끼가 되고 마음은 십자가와 보혈이 있을 곳이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이 진리를 실심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다.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건너니 자기 그리스도도 믿어임아 우리를 자기와 확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확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고후 5:17,18). 놀라지 않은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피조물로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율법준 공사와 같이 싸워 나가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길은 모든 신자들이 정자 하늘에 함께 모여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이고, 영원토록 영광과 보배와 천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균형과 같이 앞에 가진 주를 따라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자.

제36대 장로 후보자 명단

	김연근	
	나이	61
	교구	17
	봉사 부서	지역장 영아부부장
번호: 1		

	김중선	
	나이	52
	교구	8
	봉사 부서	지역장 유년부부장
번호: 2		

	김창국	
	나이	56
	교구	1
	봉사 부서	지역장 탁아부부장
번호: 3		

	임창식	
	나이	51
	교구	7
	봉사 부서	지역장 유치부부장
번호: 4		

(가나다 순)

제17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공석생	
	나이	50
	교구	14
	봉사 부서	구역장 헌금위원
번호: 1		

	구창회	
	나이	53
	교구	16
	봉사 부서	전도회장 구역장
번호: 2		

	김기태	
	나이	41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2부
번호: 3		

	김명성	
	나이	46
	교구	9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4		

	김성수	
	나이	42
	교구	16
	봉사 부서	안내위원
번호: 5		

	김옥권	
	나이	53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6		

	김운섭	
	나이	54
	교구	3
	봉사 부서	구역장 아편찬양대
번호: 7		

	김종성	
	나이	55
	교구	9
	봉사 부서	차량봉사
번호: 8		

	김충진	
	나이	59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9		

	김현배	
	나이	60
	교구	10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10		

	김현철	
	나이	52
	교구	6
	봉사 부서	신혼가정부 남성구역장
번호: 11		

	문경안	
	나이	47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합령루아원양대
번호: 12		

	문홍무	
	나이	55
	교구	2
	봉사 부서	교구간사 구역장
번호: 13		

	박광석	
	나이	64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헌금위원
번호: 14		

	박민호	
	나이	59
	교구	18
	봉사 부서	구역장 사랑부
번호: 15		

	박옥현	
	나이	51
	교구	5
	봉사 부서	구역장 가브리엘찬양대
번호: 16		

	박찬서	
	나이	46
	교구	11
	봉사 부서	소년부 남성구역장
번호: 17		

	서준성	
	나이	45
	교구	1
	봉사 부서	전임지휘자
번호: 18		

	신중식	
	나이	62
	교구	15
	봉사 부서	바울회장 장년2부
번호: 19		

	안준모	
	나이	42
	교구	4
	봉사 부서	에바다부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20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양승복	
나이	43
교구	13
봉사 부서	구역장 전도회장
번호: 21	



양은식	
나이	62
교구	5
봉사 부서	구역장 가브리엘원양대
번호: 22	



양효민	
나이	48
교구	9
봉사 부서	중동3부
번호: 23	



예정호	
나이	45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24	



유재훈	
나이	57
교구	17
봉사 부서	교구간사 할렐루야원양대
번호: 25	



유종석	
나이	55
교구	4
봉사 부서	생가죽부
번호: 26	



윤명범	
나이	44
교구	16
봉사 부서	에바다부
번호: 27	



윤민재	
나이	43
교구	16
봉사 부서	고등부
번호: 28	



윤용현	
나이	43
교구	7
봉사 부서	현금위원
번호: 29	



윤해군	
나이	47
교구	14
봉사 부서	외선부
번호: 30	



이균우	
나이	67
교구	2
봉사 부서	대학부
번호: 31	



이덕규	
나이	58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32	



이동경	
나이	64
교구	5
봉사 부서	장년2부 바울회장
번호: 33	



이병두	
나이	51
교구	6
봉사 부서	고등부 구역장
번호: 34	



이상돈	
나이	44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35	



이신동	
나이	41
교구	7
봉사 부서	외선부 남성구역장
번호: 36	



이용수	
나이	59
교구	10
봉사 부서	현금위원
번호: 37	



이재호	
나이	37
교구	7
봉사 부서	청년1부 남성구역장
번호: 38	



이창희	
나이	45
교구	9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유직부
번호: 39	



이희우	
나이	53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현금위원
번호: 40	



장기락	
나이	41
교구	3
봉사 부서	요한회장
번호: 41	



장병준	
나이	37
교구	7
봉사 부서	요한회장 외선부
번호: 42	



전성욱	
나이	43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43	



조성훈	
나이	60
교구	15
봉사 부서	장년2부 상조회
번호: 44	



조윤준	
나이	41
교구	13
봉사 부서	구역장 할렐루야원양대
번호: 45	



지정록	
나이	51
교구	1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46	



최경하	
나이	54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47	



최종순	
나이	45
교구	3
봉사 부서	구역장 원양대
번호: 48	



허형철	
나이	53
교구	18
봉사 부서	구역장 장년2부
번호: 49	



홍순길	
나이	41
교구	1
봉사 부서	고등부
번호: 50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떠나기 전 - 선교는 두려움이었다.

사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낯선 장소에서 생소한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인도에 도착하기 전 까지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과 불교의 발생지이자 힌두교 등의 각종 종교의 발생지라서 과연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 들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내 가난한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와 해외 선교가 처음인 나를 힘들게 하였다.

그곳에서 - 선교는 필수였다.

그렇지만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안 나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팀의 찬송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생명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해외 선교를 가야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인도는 비록 위생적이 지 못하고 발달되지 못한 가난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곳에도 개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인도까지 선교를 오게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할렐уй 신발조차 없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 수 있었다. 굶주리고 헐벗은 많은 아이들에게 물걸레로 도울 수 있는 대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복음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더 커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매우 기뻐다. 주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동할 때나 잠잘 때나 어디에서든지 주관하시고 일하십니다.

돌아와서 - 선교는 선물이었다.

이번 인도 선교는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 인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를 드린다. 선교를 통해 불쌍한 인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전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선교는 봉사가 아니라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사사로운 걱정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절 또한 내가 단기 선교를 통해 배운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은 내가 받은 또 다른 선물이다.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선교 후 내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언숙(집사, 8교구)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3월 12일(금)-3월 20일(토)	B	직원B	진홍용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CMTC 언어훈련 일정 (매주일) 장소

언 어	시 간	강 의 실	언 어	시 간	강 의 실
몽 골	15:00~16:00	제1교육관 309호	우즈베키스탄	15:00~16:00	제1교육관 204호
러시아	"	베다니홀	방글라데시	"	제1교육관 303호
루마니아	"	제1교육관 501호	캄보디아	"	제1교육관 206호
중 국	"	제1교육관 405호	카자흐스탄	"	제1교육관 202호
우크라이나	"	제1교육관 301호	영어(초급)	18:10~19:00	제1교육관 401호
불가리아	"	제1교육관 401호	영어(중급)	"	제1교육관 204호
인 도	"	제1교육관 307호	영어(고급)	"	제1교육관 206호

휴 강 : 스리랑카, 리소스, 파키스탄(3월-6월), 미얀마, 베트남(3월-4월).

함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김 소 정 (대학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고, 준비도 많이 미흡한 탓에 두려운 마음으로 인도 땅으로 출발하였습니...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걱정을 안고 도착한 인도에서 주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미약하고 작은 저를, 그리고 우리 팀을 들어 주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만난 인도란 나라는 참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포용력이 있어 보이고 낙천적이요... 하지만 선교지로서의 인도는 참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영혼들이 있고 유일한하신 예수를 강요하면 그런 아이라고 반박하는 영혼들이 있는 안타까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보다는 그저 외국인인 우리가 신기해서 모여드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인 인도 까다파(안드라 프라데쉬 주)에 도착해 헨디어도 잘 통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영혼들을 보고 있자니 참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음번 이 지역과 사역을 위해 그 지역 언어인 텔루구어 전도 용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역 기간 내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개심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동역자들과 함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고 온 씨앗이 인도 땅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던 그 인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2004 춘원 단기선교

팀 구성과 팀 훈련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엡 4:3-4).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창 2:18).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들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여 육체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다(시 133:1).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구의 지역장들과 목사를 통해 팀을 뽑으실 수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팀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가 되어야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전 4:10-12).

팀을 구성하고 훈련하는 과정도 자신의 뜻이나 기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단기 선교팀은 주님이 뽑아주신 팀이다. 그러므로 팀이 구성된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야 한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자.

팀 구성 방법과 훈련일정은 아래와 같다.

1. 팀 구성

- 1) 팀 구성은 기본적으로 교구팀(14개 지역별로), 부서팀(고등, 대학, 청년1·부2, 예비다팀)으로 구성된다.
- 2) 기타 지원 팀은 교구팀으로 다녀 온 후, 2차로 가는 경우에 구성된다.
- 3) 팀원은 8~10명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 4) 팀장은 교구의 지역장들과 목사나 장로 그리고 부지역장이 맡는다.
- 5) 팀 구성은 인간의 기준이나 편리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팀 훈련

- 1) 파송 전까지 팀훈련을 20회 이상 해야 한다.
- 2) 팀 훈련 내용
영성훈련, 선교지 연구, 팀워크훈련, 전도훈련, 언어훈련
- 3) 팀 훈련은 팀장이 주도하여 이끌어가며 지도 목사가 4회 이상 참여해 지도한다.

(선교위원회 제정)

달라진 나의 믿음

이은미 (중등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다. 우리집 가정예배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빌립보서 1장 21절을 암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성경말씀과 함께 충현의 만나와 주간충현에 실린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한 단락씩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있다. 아버지는 기도하시다 가끔씩 울기도 하신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동생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 동생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아멘'이라고 하신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자주자주 말씀하시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교회학교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목사님의 설교도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공과 공부신앙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무슨 뜻인지 잘 것도 모를 것도 없지만 가정예배는 물론,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드리는 예배시간마다 십자가에 대항하여 돌면서 생각할 때 믿음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 주일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 하였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은혜의 길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엡 2:1-10)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며 육체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상의 것들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죄의 종이었습니 다. 하나님의 심판台前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종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만민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에게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생 종속을 쫓으며 죄와 함께 팔렸던 죄인들이 아닙니까? 어리석고 무지하여 중생의 진리같은 자들에게 끌려 다니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주하여 이리저리 부딪히고 시달리며 상처받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어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 하시고 베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공중에 종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4-5).

선물은 아무런 조건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 다. 멸망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의 생물을 어떠한 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7).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은 성도들도 부활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시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을 치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 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만민에게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유치부 김준 혜엄아



준혜는 7살이고 유치부 찬양대원입니다. 유아부 때에는 거의 엄마의 의지에 따라 찬양대를 했었는데, 유치부에 오면서 조금 의지해졌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전과는 달리 헌금송이나 말씀 암송, 성경이야기대회 등 유치부에서 행하는 여러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다른 엄마들처럼 잘 챙겨주지 못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찬양대원으로 거의 매일 헌금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러 가고 피아노 앞에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덧 준비하고 와서 함께 따라 부르며 찬양을 하지요. 그런 준비를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찬양할 때 깨끗한 영으로, 두려움 없이 부르는 것을 보면 왠지 제 자신의 더럽고 추하며 찬양할 때 대대하지 못한 모습이 떠올라 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지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태교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찬양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한 해 두 해 성장하게 되니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나의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준혜의 입에서 평생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선전하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얻은 것이므로 우리의 행위로 된 모든 것을 자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고전 1:31).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엡 2:10).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며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 위에 명령하신 단기선교는 하나님에 예정하신 대역사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내는 이 엄청난 일에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만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충현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 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온 교회가 새롭게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남보다 자기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걸이기는 충성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아멘!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자라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려를 얹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미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망해서는 미련만 자가 되게 마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세주의 물론 보배보다 남보다 나를 절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오! 주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남보다 십자가에 못 박고(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연 전도사)

교회탐방 ⑦ - 청년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앞드리는 청년들

△ 팀 모임 중 서로를 격려하는 청년들

청년부는 주일에 집회를 마치고 GBS라는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 총 24개의 조가 있으며 각 조는 8~10명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공부하는 내용은 그 주 위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중점의 만나와 구역

공과를 통해 공부한다. 청년들은 구역공과와 질문들에서 서로 묻고 나누는 중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간다. 각 조를 인도하는 조장들은 GBS를 위해 수요2부 예배 후 따로 모여 조장 성경공부를 하며 미리 연습한다.

청년들은 이런 성경공부나 구역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집시시간을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로 조정했다. 이는 주일 오전에 각 교육부에서 교사로서 연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기선교에 참여하라고 한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교구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자체 팀으로 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단기선교 준비 팀들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선교를 하기 위해 직장에서 유가 일들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불이익을 끼기어 감수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청년의 때,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학교에서는 십 수년 동안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무엇든 할 수 있다고 애매하고 이야기하고, 직장에서는 다른 곳에 는 돌림 토크에 경쟁 구도 속으로 몰고 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최면 모습을 끊임없이 들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점점 강력하게 굳어져 간다. 세상을 이여한 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길들여지고 만다. 하지만 충현의 청년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거민들과 싸우고 있었다.

청년부는 화려하지 않다.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서툰 모습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공부를 위한 24개 조와 여러 부서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청년부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위인 10명으로 인해 소동들을 멸망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뚝딱 칭함을 받는 청년들이 늘어날 기도를 바란다. 십자가만을 붙드는 청년들이다...

한 청년의 고백으로 글을 마치려 한다.



△ 주일 저녁 선배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조장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늘 내 안에 가르치시지만, 나는 정말 너무도 많이 넘어지고 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나라는 음란과 교만과 자의함을 보면서 나의 철저한 최면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할 성경에 새 있는 주의 은혜를 믿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만 것이니라 - 시편 119:9

(정리/권집철)

... 복음의 길을 걸음시다 ⑨

복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동기에 관하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썩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썩과 같으니 썩은 마르고 썩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3-25).

성경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들의 썩과 그 썩의 썩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들의 썩어나 꽃이라는 것은 그 탄생에서부터 자신의 의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꽃이 바로 그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사람도 이런 썩과 같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태어나서 잠시 잠깐 있다가 죽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삶도 이런데 하물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셨다는 것이다. 23절에서는 그 씨앗을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치된 '살아 있고 항상 있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단 6:26).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아 될 특징이 말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곧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시니라"(요 1:1).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예수 자신이시고 그분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이다. "자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요 6:68). 오직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우리가 가야할 길은 오직 복음의 길 뿐이다.

김영현(목사, 9교구 지도)

주 영혼을 위한 간구

김진채 장로(1교구)

위임수술을 받으신 후에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편히 주무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풍성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부를 아무런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히 13:8)의 은혜 볼 것을 믿고있다 나는 예회와를 바랄지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이다"(사 27:13, 14).

다음 주일 찬송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음 주일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는 시편 32편 8절에 있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내용을 목상해 보자.

1절 : 지금도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 어린이뿐만 아닌 우리 모두를 주께 오라고 부르심을 기억하여 찬송해야 할 것이다.

3절 : 우리가 볼것 같아 생각하는 어린이들을 용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어 한결같은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생각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는 어린이를 축복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케 되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중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주를 만나게 되니 이 얼마나 감격되고 기쁜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여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목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8	한병규	1	청년부	이성훈(14)	316	황미희	19	대학부	장승(1)
299	양영미	2	청년부	장경호(3)	317	황성진	19	대학부	장승(1)
300	주정훈	4	청년부	이진규(6)	318	최희정	19	대학부	
301	이은숙	6	청년부	조연희(6)	319	최원익	19	청년부	임우도(16)
302	최세훈	6	대학부	조연희(6)	320	최규정	19	청년부	임우도(16)
303	정희현	8	청년1부	서희준(13)	321	김성훈	19	청년1부	박영순(13)
304	이혜경	8	청년2부	김만기(6)	322	이기영	19	청년1부	박영순(12)
305	이정란	9	청년1부	김만기(6)	323	김자립	19	청년1부	
306	장은정	10	청년1부	최성일(10)	324	이지영	19	청년1부	
307	서정주	11	청년3부	이은영(15)	325	채은혜	19	청년1부	영숙현(18)
308	오양자	14	외전부	심재홍(15)	326	김진상	19	청년1부	최영호(18)
309	배근도	19	청년부	홍은기(3)	327	김자선	19	청년1부	최영호(16)
310	박귀옥	14	청년2부	홍은기(3)	328	서정원	19	청년2부	
311	이지혜	19	고동부		329	장희철	19	외전부	김진숙(1)
312	정보라	19	고동부	김진숙(15)	330	고영훈	19	외전부	김진숙(1)
313	세다르	19	외전부	심재홍(15)	331	현희	19	외전부	김진숙(1)
314	박옥민	19	대학부	김승호(19)	332	나국호	19	외전부	김진숙(1)
315	최정욱	19	대학부	이재선(19)	333	연미분	19	외전부	심재홍(15)

* 송천교회와 한 교회이 되기위해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서기국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2교회 월례회
일시: 17일(수) 수교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송파부동원 주일
일시: 28일(주일) 12:00-13:00
장소: 관림리교회
3. 삼일전도회 월례회
일시: 15일(월) 19:30-21:30
장소: 본당 112호
4. 중헌전도대 전반기 훈련 개강 예배
일시: 17일(수) 13:30
장소: 나사렛

별 세

1. 신촌사 타교인사 박희숙 집사의 모전, 정준 집사의 장모, 13교구 신임구역/21 별세, 4일 장례
2. 김삼균 성도 배하와 집사의 남편, 김희숙·김예숙 집사의 부친, 장영덕 안수집사·김춘식 집사의 장인, 11교구 한남구역/5일 별세, 8일 장례
3. 김기창 타교인사 김미연 집사의 부친, 3교구 동신구역/8일 별세, 10일 장례
4. 회화동 타교인사 이상민 성도의 모전, 이현자 집사의 시모, 3교구 개나리구역/8일 별세, 10일 장례
5. 정현민 성도 박현희 집사의 남편, 7교구 문현구역/9일 별세, 11일 장례
6. 김홍실 은퇴교인사 홍시호 안수집사의 장모, 최현숙 집사의 오모, 18교구 상원구역/10일 별세, 12일 장례

◆ 교육 1·2·3위원회 기타 위원회 회계 정기감사 실시

감사기간: 2004년 3월 중 대상기간: 2003년 10월 ~ 2004년 1월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실(302호) 준비서류: 시산표 2부, 군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등

◆ 2004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기 간: 3월 7일 ~ 6월 27일 (매주일) 시 간: 15:15 ~ 16:30
장 소: 초교·고 207호 / 중교·고 206호 / 고교·고 205호
신청 및 문의: 예배대부(고 207호)

◆ 이미용 봉사자 교육성 모인

이미용전도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봉사자 교육성을 모집한다.

자 격: 45~55세의 여성 사례교인으로 이미용 봉사에 헌신하실 분

접수기간: 3월 7일 ~ 3월 21일

접수장소: 전도위원회 간사실(제교육관 6층)

문 의: 이미용전도회 총무 ☎06-343-0390

◆ 동서노회제 제65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신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 고신 청원(감당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감당사 인허 고시 청원
 - ③ 전도사 고시 청원
 -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⑤ 신학 계속 학원 청원 (총신대학 및 총신신대학 재학생)
- 제출기간: 2004년 3월 17일(수)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 ☎552-8200 #404

이번주(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담당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주일)
설교자/기도자	김교성/정태두	김교성/나승은	김교성/윤병식	김교성/김정철	김교성/강석화	김교성/장덕필	김교성/장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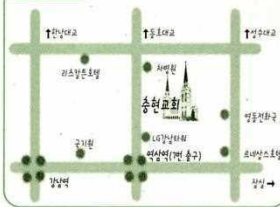
예배 담당안내 (3/17~3/21)

날짜	예배	예배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3/17	수요 I		이영숙	진정한 자유함(롬 3:19-21) 김성관 목사
3/17	수요 II		장종신	경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골 6:11-18) 양재용 목사
3/19	금요일회	특별찬양 (양도 이상민·배리논 사순절·별면·중환간)	이재영	유일한 도피장-예수 그리스도(마 3:21-4) 안창덕 목사
3/21	주일 I		이재영	새로운 출발(수 59:15) 고광환 목사
3/21	주일 II	나의 영원한 기쁨 외·소프라노 김소연(합창부·이현애·송모아스)	김정철	새로운 출발(수 59:15) 이원철 목사
3/21	주일 III	은혜한 주님의 음성 외·브리엔 여섯중창단(내외·김영숙)	여국근	새로운 출발(수 59:15) 김성관 목사
3/21	주일 IV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외·소프라노 이하나(합창부·이현애·송모아스)	원강진	새로운 출발(수 59:15) 김성관 목사
3/21	주일 V	은혜한 주님의 음성 외·소프라노 조혜인(별면·찬양대·송모아스)	이희식	새로운 출발(수 59:15) 장영철 목사
3/21	주일찬양		정진호	오직 은혜로(창 30:33-36) 정현민 목사

3월 중헌 거도의 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권해 하시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 ②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 ③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간구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생명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탐이 되게 하시고, CMTC와 안이훈원 및 탐강원원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 ④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⑤ 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 영성훈련을 통하여 군도 16교구의 복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전구일꾼들이 많이 성장하게 하소서.
- ⑥ 특별히 3월 21일에는 주의 교회를 섬길 선한 청지기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중헌교회가 복음의 길로 더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하계동·동성교회 예배)	본 당
	V 오후 3:00(폴리카드 교회 예배)	본 당
찬양대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회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광장
금요일회	오후 10:30	본당 앞광장

■ 사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전국	이병학
김영철	장모용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두길
김진세	이창호	차진득	김장남	이종석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갑재	김종용
전종열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만만	김주형	최유덕	이계인	박다영
이대식	정태두	박규구	권명옥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이철호	박진원	최지훈
노영만	박철구	정정길	신상수	고재승
강현철	김영은	이달옥	정철환	김승곤
함철주	유석민	정선진	안석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철	여국근	김교성	한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위강만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원철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석현	이대복
김종신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진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원
■ 어전도사	정철희	신동자	윤윤식	한영준
■ 훈교사	이우주	김갑자	안대순	김정현
■ 조목사	장덕필	장재구	최문식	전은희
■ 김성관	김정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 류진희				
■ 찬양감독	강영구			
■ 찬양팀장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효숙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청 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유 아 부	오후 2:00	교육관 201호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강 일 리 홀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신 중 가 장 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홀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청 년 1부	오전 9:00(하계동·동성교회 예배)	교육관 207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태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새가목사	오전 9:30	강일리교회, 배다니홀
대 학 부	토, 일 4:00	제2교육관 4층	총현이언이집	주인교제	총현이언이집
청 년 1부	정오 12:00	제2교육관 4층	정선진선교공부	주인교제	총현이언이집
			국제사역선교공부	오전 11:00	이 번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4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한어, 인도네시아어 등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ri Lankan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